

시나리오 3: '퍼펙트 스톰' 분석 및 조기경보 체계 보고서

목차

서론: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와 복합 위기의 부상

1.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1.1. 시나리오 정의

1.2. 심층 분석: 파국으로의 세 단계

2. 모니터링 시장 지표 (Bloomberg 데이터)

2.1. 핵심 모니터링 지표

2.2. 지표별 의미와 위기 전이 경로 분석

3. 사전 감지(Yellow)·임박(Red) 뉴스 키워드

3.1. 뉴스 키워드 매트릭스

3.2. 정성적 데이터의 정량화: 키워드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4.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4.1. 연계 정보 정량화

4.2. 시나리오 '지문' 시각화 및 해석

5. 신한은행 영향 분석 ('수익성'·'유동성')

5.1. 재무 건전성 영향 평가

5.2. 충격 메커니즘 심층 분석

6.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6.1. 종합 평가

6.2. 신한은행을 위한 전략적 대응 권고

결론: 위기 너머의 회복탄력성을 향하여

서론: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와 복합 위기의 부상

2025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 시장은 표면적 안정 이면에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한 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의 탈동조화, 격화되는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은 개별적으로도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지만, 이들이 서로 얽히고 증폭될 때 발생하는 '복합 위기(Compound Crisis)'는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로는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보고서에서 경고했듯,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위기의 패턴을 답습하는 히스토리컬 시나리오(Historical Scenario)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재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조준하는 '극단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Plausible but Severe)' 복합 위기 시나리오, 즉 **시나리오 3: 퍼펙트 스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교한 조기경보 체계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급진적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강경 대응이 촉발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가정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충격을 넘어, 전후(戰後) 세계 질서의 근간인 자유무역과 달러 패권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시스템적 위기(Systemic Crisis)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단순히 위기 상황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의 전개 과정을 단계별로 구조화하고, 각 단계에서 감지해야 할 핵심 시장 지표와 뉴스 키워드를 식별하며, 이들이 신한은행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생존을 넘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권고하고자 한다. 예측 불가능성을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가 신한은행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핵심 요약

본 시나리오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중국 초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 및 미 국채 매각 위협으로 맞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 붕괴,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 붕괴로 이어지는 최악의 복합 위기입니다.

1.1. 시나리오 정의

본 시나리오의 공식적인 정의와 단계별 전개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이는 위기의 발생 배경부터 최종적인 시스템 붕괴에 이르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한 것이다.

Scenario_ID	Scenario_Name	Description
SC003	퍼펙트 스톰 -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와 기술 공급망 붕괴의 시너지	<p>[발생 배경] 미국 차기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반도체, 전기차 등)에 60% 이상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미 국채 매각 카드로 강력히 보복하며 발생하는 총력전 양상의 지정학적 위기.</p> <p>[전개 흐름]</p> <p>Phase 1 (공급망 충격):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로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 마비되고, 원가 급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발생.</p> <p>Phase 2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교역 위축과 불확실성 증폭으로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가 급격히 냉각.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며 중앙은행은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p> <p>Phase 3 (시스템 위기 전이): 기업 이익 급감과 부채 부담 가중으로 신용 위기가 전 산업으로 확산. 중국의 미 국채 매각 위협이 현실화되며 안전 자산의 상징인 미 국채 가격이 폭락(금리 폭등)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붕괴되는 '블랙 스완' 이벤트로 발전.</p>

1.2. 심층 분석: 파국으로의 세 단계

표에서 제시된 전개 흐름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충격이 다음 단계의 더 큰 충격을 유발하는 연쇄 반응의 과정이다. 각 단계의 동인과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다.



미중 관계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안정의 핵심 변수이며, 양국 간 갈등 격화는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의 주요 동인이다

Phase 1: 공급망 충격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위기의 서막은 '60% 보편적 관세'라는 전례 없는 보호무역 조치로 열린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한 표적 관세가 아닌,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 전반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온다.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비대칭적 카드로 나타난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어 이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생산 라인을 직접적으로 멈춰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이 두 가지 조치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기술 공급망은 물리적 으로 단절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하며,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유발한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니,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Phase 2: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정책적 교착상태

공급망 붕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다. 미중 무역 분쟁의 극단적 격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켜 기업들의 투자를 전면 중단시킨다. 소비자들 역시 급등하는 물가와 고용 불안 우려로 지갑을 닫는다. 결국 경제는 성장을 멈춘 채 물가만 치솟는 최악의 조합,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늪에 빠진다. 이는 중앙은행을 정책적 교착상태(Policy Dilemma)로 몰아넣는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취약한 경기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떠한 정책 수단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진다.

Phase 3: 시스템 위기 전이와 '블랙 스완'의 출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기업 이익이 급감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용위기는 기술 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 확산된다. 한계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은 마지막 카드, 즉 '미 국채 매각' 위협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충격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블랙 스완' 이벤트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던 미 국채의 가격이 폭락(금리 폭등)하면, 이를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의 가치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패닉' 상태를 유발한다.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사라지고, 모든 자산 가격이 동반 폭락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 모니터링 시장 지표 (Bloomberg 데이터)

핵심 요약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충격, 시장 공포, 신용 및 유동성 경색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시장 지표 6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합니다. 각 지표의 임계치 (Threshold)는 위기의 심각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1. 핵심 모니터링 지표

이론적 시나리오를 현실 세계에서 감지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징후를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는 시장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아래 표는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의 조기 경보를 위해 선정한 6개의 핵심 지표와 관련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Indicator_ID	Indicator_Name	Bloomberg_Ticker	Data_Frequency	Threshold_Low	Threshold_High	Volatility(%)	Curre
IND00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SOX Index	1D	4,500	4,000	3.5	~5,50
IND002	VIX 변동성 지수	VIX Index	60min	40	60	15.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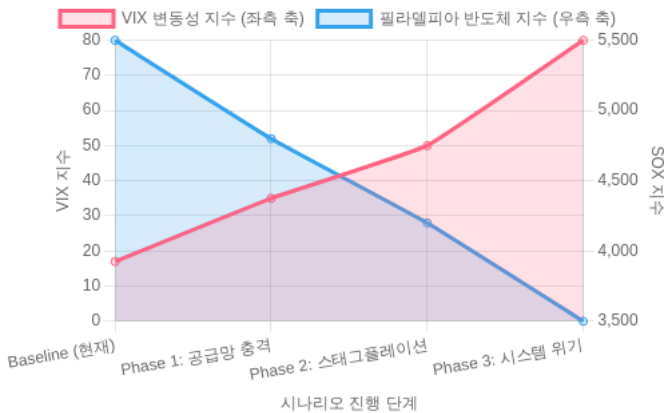
Indicator_ID	Indicator_Name	Bloomberg_Ticker	Data_Frequency	Threshold_Low	Threshold_High	Volatility(%)	Curre
IND003	원/달러 환율 (USD/KRW)	USDKRW Curncy	60min	1,600	1,700	1.8	1,380
IND004	미국 10년물 국 채 금리	USGG10YR Index	1D	5.50%	6.00%	2.1	4.43%
IND005	한국 CDS 프리 미엄 (5년)	CSKR5 Curncy	1D	120 bps	180 bps	8.5	35 bp
IND006	중국 위안화 변동 성 지수	CNHVIX Index	1D	15.0	20.0	9.8	7.0

2.2. 지표별 의미와 위기 전이 경로 분석

각 지표는 '퍼펙트 스톰'의 특정 측면을 반영하는 렌즈와 같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기의 현재 위치와 향후 전개 방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이 지수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바로미터다. 미중 관세 전쟁과 수출 통제의 첫 번째 희생양이 반도체 산업이므로, SOX 지수의 급락은 시나리오 1 단계(공급망 충격)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다. 4,500선 붕괴는 심각한 조정, 4,000선 붕괴는 위기 상황 진입을 의미한다.
- **VIX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로 불리는 VIX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장 잘 보여준다. 평상시 10-20 수준에 머물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급등한다. VIX가 40을 넘어서면 시장이 극심한 공포 상태에 진입했음을, 60을 넘어서면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수준의 '패닉'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시나리오 2단계(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3단계(시스템 위기)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 **원/달러 환율 (USD/KRW):** 글로벌 위기 시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쏠리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는 급락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교역 위축에 매우 취약하므로, 원/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의 강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1,600원 돌파는 외환시장의 심각한 스트레스, 1,700원 돌파는 외환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는 수준이다.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 지표는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준다. 초기에는 안전자산 선호로 금리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할 수 있으나,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이 현실화되는 3단계에 이르면 신뢰 붕괴로 금리가 폭등(채권 가격 폭락)하게 된다. 6.0%를 넘어서는 금리 수준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최악의 신호다.
- **한국 CDS 프리미엄 (5년):**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 신용도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수치가 180bps를 넘어서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부도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중국 위안화 변동성 지수 (CNHVIX):** 이 지수는 중국발 리스크의 진양지를 보여준다. 중국 정부의 정책, 자본 유출 압력, 지정학적 긴장 등이 높아질수록 위안화의 변동성은 커진다. CNHVIX가 20을 넘어서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의 미 국채 매각과 같은 극단적 조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시나리오 전개에 따른 핵심 지표 경로 시각화



3. 사전 감지(Yellow)·임박(Red) 뉴스 키워드

핵심 요약

시나리오 전개 단계별로 뉴스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위기 징후를 포착합니다. 'Yellow' 키워드는 위기의 서막을 알리는 초기 경고 신호이며, 'Red' 키워드는 위기가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로 관리하여 정성적 정보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3.1. 뉴스 키워드 매트릭스

시장 지표가 위기의 '결과'를 보여준다면, 뉴스와 정책 발표에 나타나는 특정 키워드는 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아래 표는 시나리오 단계별로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키워드를 'Yellow(사전 감지)'와 'Red(위기 임박)'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Scenario_ID	Indicator_ID	Keyword	Phase	Weight(0-1)
SC003	IND001	보편적 관세 (Universal Tariff)	Yellow	0.8
SC003	IND001	반도체 공급망 (Semiconductor Supply Chain)	Yellow	0.7
SC003	IND006	희토류 수출 통제 (Rare Earth Export Control)	Yellow	0.9
SC003	IND004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Stagflation Concern)	Red	0.8
SC003	IND002	패닉 셀링 (Panic Selling)	Red	0.7
SC003	IND004	미 국채 매각 (US Treasury Sell-off)	Red	1.0
SC003	IND003	외환보유고 급감 (FX Reserves Decline)	Red	0.8
SC003	IND005	국가 신용등급 강등 (Sovereign Rating Downgrade)	Red	0.9

3.2. 정성적 데이터의 정량화: 키워드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키워드 모니터링은 단순히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를 세는 것을 넘어선다. 정교한 조기경보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을 활용하여 키워드의 출현 빈도, 맥락, 그리고 감성(긍정/부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기 신호의 강도를 측정한다.

Yellow Phase: 위기의 징후 감지

Yellow 키워드는 아직 시장 지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 위협의 등장을 알린다. 예를 들어, 미국 행정부 관계자나 유력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보편적 관세(Universal Tariff)'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하면, 이는 정책 방향의 급진적 변화를 예고하는 첫 신호탄이다. '희토류 수출 통제(Rare Earth Export Control)'가 중국 관영 매체에서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 단계에서는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발언 주체의 영향력을 가중치로 두어 '경고' 수준의 알림을 생성한다. 이는 리스크 관리 부서가 관련 익스포저를 점검하고 초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트리거가 된다.

Red Phase: 위기의 현실화

Red 키워드는 위기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요 경제 매체 헤드라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Stagflation Concern)'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패닉 셀링(Panic Selling)'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면, 이는 시나리오 2단계가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특히 '미 국채 매각(US Treasury Sell-off)'이라는 키워드가 중국 재정부나 인민은행 관계자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시나리오 3단계로의 진입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며, 즉각적인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요구한다. 이 단계의 키워드는 가중치(Weight) 1.0에 가까운 최고 수준의 민감도를 가지며, 감지 즉시 최고 경영층에 보고되어야 한다.

4.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핵심 요약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와 각 모니터링 지표 간의 연관성 강도(Weight), 과거 데이터 기반 상관관계(Correlation), 그리고 시나리오 발생 시 예상되는 변동성 충격 수준을 정량화하여 분석의 정밀도를 높입니다. 이는 각 지표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4.1. 연계 정보 정량화

시나리오와 모니터링 지표 간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이는 어떤 지표의 움직임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발생 시 각 자산 클래스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을지를 예측하는 근거가 된다.

Scenario_ID	Indicator_ID	Weight	Correlation_Coeff	Volatility_Impact(%)
SC003	IND001	0.85	-0.75	45.0
SC003	IND002	0.95	0.90	370.0
SC003	IND003	0.90	0.85	25.0
SC003	IND004	0.80	0.80	40.0
SC003	IND005	0.75	0.70	400.0
SC003	IND006	0.90	0.88	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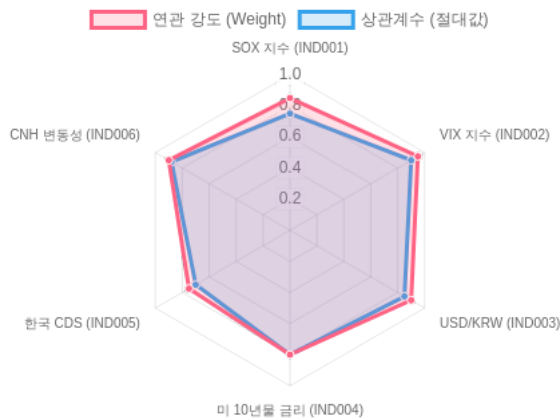
4.2. 시나리오 '지문' 시각화 및 해석

위 표의 데이터는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가 가진 고유한 '지문(Fingerprint)'을 보여준다. 각 지표의 연계 정보를 시각화하면 이 시나리오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Weight (연관 강도):** VIX 지수(0.95)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진다. 이는 '퍼펙트 스톰'이 본질적으로 시장의 공포 심리를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시나리오임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 CDS 프리미엄(0.75)은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는데, 이는 위기가 한국의 개별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스템 전체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 **Correlation_Coeff (상관계수):** 대부분의 지표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위기가 심화될수록 VIX, 원/달러 환율, 미 국채 금리 등은 동반 상승한다. 유일하게 SOX 지수(-0.75)만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기술주 중심의 위험자산이 폭락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 **Volatility_Impact (변동성 충격):** 이 항목은 시나리오의 파괴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 CDS 프리미엄(400%)과 VIX(370%)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소 안정적이던 국가 신용도 관련 지표와 시장 변동성 지수가 위기 시에는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격렬하게 움직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반면 원/달러 환율(25%)이나 미 국채 금리(40%)는 절대적인 가격 변화는 크지만, 변동성 자체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나리오 3 '퍼펙트 스톰'의 지표 연관성 프로파일



5. 신한은행 영향 분석 ('수익성'·'유동성')

핵심 요약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가 신한은행의 핵심 재무 건전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대손비용률, 외화 LCR에 미칠 충격을 5단계로 평가합니다. 전방위적 리스크로 인해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 모두 최고 수준인 '5단계(위기)'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5.1. 재무 건전성 영향 평가

거시 경제 시나리오가 은행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은 재무제표의 숫자로 나타난다. '퍼펙트 스톰'은 은행의 존립 기반인 수익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모두를 동시에, 그리고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1-5)
BM001	NIM(%)	1.65%	1.58%	1.30%	5 (위기)
BM002	LCR(%)	105%	102%	95%	5 (위기)
BM003	대손비용률(%)	0.35%	0.40%	0.80%	5 (위기)
BM004	외화 LCR(%)	90%	88%	80%	5 (위기)

*Impact_Level 정의: 1(경미) → 2(주의) → 3(경계) → 4(심각) → 5(위기)

5.2. 충격 메커니즘 심층 분석

모든 지표가 '5단계(위기)'로 평가된 것은 이 시나리오가 은행의 특정 부문이 아닌, 경영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충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각 지표가 악화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수익성 붕괴 (NIM 및 대손비용률)

순이자마진(NIM)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다. **(1) 조달 비용 급등:** 글로벌 신용경색과 시스템 리스크 부각으로 안전 자산 선호가 극에 달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예금 금리, 은행채 발행 금리)이 폭등한다. **(2) 이자수익 급감:**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기업과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고 부실이 증가하면서 대출 자산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신규 대출 수요는 급감한다. 이자수익은 줄어드는데 조달 비용은 늘어나니 NIM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대손비용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다. 특히 미중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수출 대기업부터 관련 중소 협력업체까지 연쇄 부도 위험에 노출된다. 은행은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해 막대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이는 당기순이익을 직접적으로 잠식하여 최악의 경우 적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동성 고갈 (LCR 및 외화 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고품질 유동성 자산(HQLA)'을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퍼펙트 스톰'은 분자와 분모 모두를 최악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1) 분자(HQLA) 가치 하락:** LCR의 핵심 자산인 국공채 가격이 미 국채 금리 폭등의 영향으로 급락하면서 HQLA의 평가 가치가 감소한다. **(2) 분모(순현금유출) 급증:** 시장 불안 심리가 고조되면서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유동성이 고갈된 기업들은 약정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최대한 인출(Credit Line Drawdown)하려 할 것이다. 이는 향후 30일간의 순현금유출 전망치를 급격히 끌어올린다. 특히 **외화 LCR**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마르는 '달러 스퀴즈' 상황에서 외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외화 유동성 자산 확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다. 이는 은행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6.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핵심 요약

개별 지표의 발생 확률과 시나리오 연관 가중치를 종합하여 산출한 '퍼펙트 스톰'의 발생 가능성은 **75.4%**로, 종합 리스크 레벨은 최고 수준인 **5단계(위기)**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의를 넘어, 즉각적이고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6.1. 종합 평가

개별 지표의 움직임과 연관성을 종합하여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생 확률은 각 지표의 임계치 도달 확률에 시나리오 연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평균값이다.

항목	내용
Overall Probability (%)	75.4% (각 지표의 Probability와 Scenario-Indicator Weight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Overall Risk Level (1-5)	5 (위기)

6.2. 신한은행을 위한 전략적 대응 권고

75.4%의 발생 가능성과 '위기' 등급의 리스크 레벨은 더 이상 관망할 수 없는 수준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신한은행은 아래의 대응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응 전략은 '방어'와 '기회 포착'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항목	신한은행 대응 권고
1. 포트폴리오 전략 (Portfolio Strategy)	<p>- 즉시 실행: 미중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술주(반도체, EV) 및 관련 회사채 익스포저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확보된 유동성은 현금성 자산 및 만기 1년 미만의 초단기 우량 국채 비중 확대로 전환한다. 위험자산에 대한 풋옵션 매입 등 적극적인 헤지 전략을 구사하여 포트폴리오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야 한다.</p> <p>- 위기 심화 시: 위험자산(주식, 하이일드 채권, 부동산 PF 등) 비중을 규제가 허용하는 최소 수준까지 축소한다. 위기 상황에서 가치가 보존되거나 상승하는 자산(달러 현찰, 금, 스위스 프랑 등)으로 자산을 재배분하는 '안전자산으로의 도피(Flight to Quality)' 전략을 실행한다. 단, 미 국채마저 흔들리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통적 안전자산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고 자산 배분을 극도로 다변화해야 한다.</p>
2. NIM 방어 전략 (NIM Defense)	<p>- 선제적 조치: 조달 비용 급등에 대비하여, 변동금리부 부채 비중을 줄이고 커버드본드, 장기 고정금리 예금 등 장기 고정금리 자금 조달 비중을 확대한다. 기업 신용평가 모델을 스테그플레이션 스트레스 상황에 맞춰 전면 재조정하고, 이를 대출 가산금리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리스크 가격을 정상화해야 한다.</p> <p>- 위기 대응: 한계기업 및 고위험 산업군(수출입 의존 기업, 기술 부품사 등)에 대한 신규 여신을 사실상 중단(Negative Screening)하고, 기존 여신에 대해서는 담보 보강 및 한도 축소를 요구한다. 과거 데이터 기반의 총당금 모델을 넘어, 미래 예상 손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손실 흡수 능력을 극대화한다.</p>
3. 자금조달 및 유동성 관리 (Funding & Liquidity)	<p>- 비상 계획 점검 및 훈련: 달러 유동성 검색은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한국은행 및 연준(Fed)과의 통화 스왑 라인을 포함한 모든 비상 유동성 조달 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을 문서상으로만 두지 말고, 실제 가동 절차를 점검하고 모의 훈련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p> <p>- 조달 다변화 및 LCR 관리: 특정 통화(USD)나 특정 상품(단기 CP)에 편중된 자금 조달 구조를 엔화, 유로화 등 타 통화 및 장기 조달 상품으로 다변화한다. 특히 외화 LCR을 규제 수준(80%)보다 훨씬 높은 100% 이상으로 강력하게 관리하고, 외화 유동성 비상 조달 계획을 최고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p>

결론: 위기 너머의 회복탄력성을 향하여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금융위기 중 하나다. 그러나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조기경보 체계와 대응 권고는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위기의 징후를 남들보다 한발 앞서 포착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훈련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적, 재무적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퍼펙트 스톰'과 같은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역설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이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위기 이후 재편될 금융 질서의 진정한 승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1] market_risk_stress_test_scenarios_2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1/6298450475799880160/1947441507058294784_3fb66c77cb39dd7e79e9582ed4f3fd8e.pdf
- [2] 1.indicators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2/6298450475799880160/1947451542597509120_fd2306e023350736e627e825c8bcef61.xlsx
- [3] 4.scenario_indicator_link
https://static-us-img.skywork.ai/prod/analysis/2025-07-22/6298450475799880160/1947451542597509123_2ddf1c15505bfd578b7a5296d983313f.xlsx